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 현황과 특징*

金 榕 炫**

1. 서 론
2.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 현황
3.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 이슈 분석
4. 북한의 남한 군사분야 연구의 특징
5. 결 론

1. 서 론

1948년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학계의 남한 군사분야 연구에 대해, 남한학계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군사 분야의 특성상 북한 발간 원자료 접근의 어려움이 크고, 자료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본 논문은 국내외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2-B00003)

** 동국대학교-서울, 북한학과 교수

본 논문은 우선 북한정권 수립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에 소장된 북한의 남한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정기간행물, 부정기간행물, 단행본을 수집하였다.¹⁾ 다음으로, 이 문헌들에 수록된 북한의 남한연구 자료 중 군사연구 관련 자료만을 뽑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대상 자료로 선정한 37종의 잡지 중 군사연구를 다룬 자료는 12종의 정기간행물²⁾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12종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 분야 현황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북한학계가 '학술지'라는 공간문헌을 통해 남한 군사연구 전체를 다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공개되지 않은 영역에서 남한 군사연구 분야를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공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2종의 공간물에 의존해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를 분석했다.

북한학계의 남한 군사연구 범위는 남한 군사뿐만 아니라 한미군사동맹 등도 포함된다.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인식은 미국의 군사기지화, '식민지화'에 기반하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는 한미군사동맹, 한미일 군사관계 등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는 '군축',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평화협정 및 통일문제의 차원까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통일문제 등은 제외하였다.

1)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과제지원(과제 제목: 북한의 남한연구 특성과 인과메커니즘) 중형과제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물 중 하나로, 자료 수집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팀의 공동작업 결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성윤, 「북한의 남한연구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 전문학술지와 단행본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1권 2호(2009), pp. 204~213 참조.

2) 이 간행물들은 『남조선문제』(평양 : 조국통일사, 1965~1988) ; 『근로자』(평양: 근로자사, 1946~1991); 『김일성종합대학학보』(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56~2009); 『철학연구』(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62~2009) ; 『정치·법률연구』(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2009) ; 『조선녀성』(평양 : 근로단체출판사, 1946~2009); 『국제생활』(평양 : 국제생활사, 1953~1961, 1967, 1986~1991); 『사회과학』(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6~1986) ; 『교원선전수첩』(평양 : 교육신문사, 1970~2008); 『조선사회민주당』(평양 : 조선사회민주당출판사, 1983~1996, 2001~2003) ; 『인민』(평양: 민주조선사, 1946~1956) ; 『조선문제연구』(동경 : 조선문제연구소, 1957~1983) 등이다.

2.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 현황

(1) 연구자료 현황

북한의 남한 군사관련 연구 분야는 큰 틀에서 정치 분야의 하위 범주이다. 본 연구의 수행 기간에 수집한 정기간행물 중 군사관련 문헌은 총 248건³⁾이다. <표 1>과 같이 248건의 문헌 중 남한 군사연구만을 다루고 있는 문헌은 57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남한 군사연구의 범위를 확장해 미국과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군사문제, 여타의 군사동맹 등을 포괄하는 연구로 확장하였다. 이는 남한 군사연구의 영역에 대해 북한이 보다 중시하는 것들이 한미군사동맹 등이기 때문이다.

<표 1> 북한 저널별 남한연구 자료 수집 현황

간행물명	수집연도	남한연구 전체논문	군사관련 연구	남한 군사연구
남조선문제	1965~1988	2381	141	50
근로자	1946~1991	620	44	2
김일성종합대학학보	1956~2009	279	1	·
철학연구	1962~2009	58	1	·
경제연구	1956~2009	212	·	·
국제생활	1953~1991	229	21	1
역사과학	1955~2009	65	·	·
정치법률연구	2003~2009	58	2	·
사회과학	1976~1986	30	1	1
사회과학원학보	2000~2009	11	·	·
조선사회민주당	1983~2003	98	4	1
교원선진수첩	1970~2008	113	7	·
인민	1946~1956	28	4	·
인민교육	1955~2005	64	·	·
조선여성	1946~2009	296	16	·
조선예술	1967~2009	43	·	·
조선문학	1947~2009	28	·	·

3) 정치(대분류)에서 군사(중분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1700여 건에서 248건으로 약 14%를 차지하였다.

간행물명	수집연도	남한연구 전체논문	군사관련 연구	남한 군사연구
어문연구	1966~1967	·	·	·
조선어문	창간~2009	14	·	·
조선어학	창간~1965	4	·	·
조선영화	1986~1997	15	·	·
상업	1957~1964	9	·	·
통일문학	1995~2007	15	·	·
기타간행물	·	11	·	·
남조선문제논문집	1965	10	·	·
역사과학논문집	1957~1995	4	·	·
철학논문집	1959~1993	4	·	·
경제논문집	1975~1984	4	·	·
법학논문집	1955~1980	3	·	·
사회과학논문집	1966~1984	7	·	·
정경논문집	·	3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15주년논문집	1964	6	·	·
김일성종합대학창립15주년기념논문집	1961	1	·	·
8·15해방15주년기념경제논문집	1960	1	·	·
조선대학학보(조총련)	1959~2007	20	·	·
조선문제연구(조총련)	1957~1983	108	6	2
사회과학논문집(조총련)	1989~1990	2	·	·
합계	·	4,854	248	57

* 자료 수집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한국연구재단 과제 수행 기초학문연구팀

〈표 1〉의 북한 학술지 중 군사관련 연구는 북한의 남한연구 전체 논문 4,854건 중 248건으로 5.1%에 불과하다. 이는 학술지의 특성상 군사 분야의 연구 결과 자체가 많지 않고, 공개리에 발표되는 논문 숫자도 적기 때문이라 하겠다. 한편, 군사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수록된 학술지는 『남조선문제』로 전체 248건 중 141건이며 56.9%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근로자』이며, 『국제생활』, 『조선여성』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 문헌은 일련의 자료 분석을 통해 주제와 내용에 따라 〈표 2〉와 같이 남한정치 연구 영역의 하위 분야로서 군사연구로 중분류하고, 이를 크게 ‘군사일반’과 ‘군사동맹’으로 소분류하였다.

〈표 2〉 군사분야 분류 및 연구현황

대분류	정치	
중분류	군사	
소분류	일반	동맹
문헌 건수	196	52
합계	248	

이러한 분류는 해당 문헌이 지칭하는 주요 대상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군사 '일반'은 각각의 개별국에 따른 분류이며 남한의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이 중심인 문헌은 '동맹'으로 분류하였다. 분석의 중심을 남한 군사연구를 중심으로 하되, 아래의 분류는 남한의 군사연구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표 3〉과 같이, 군사일반은 미국군사 일반, 남한군사 일반, 북한군사 일반⁴⁾, 일본군사 일반, 기타군사 일반⁵⁾ 등으로, 군사동맹은 한미군사동맹, 한미일군사동맹, 기타군사동맹⁶⁾ 등으로 나누었다.

- 4) 다음의 문헌이 '북한군사 일반'에 해당한다. 김동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피괴군을 혁명의 편에 돌려세우기위한 정치사상사업에 관한 사상」, 『남조선문제』, 8호(조국통일사, 1973), pp. 17~23 ; 송택호,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드는 것은 세계열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고리」, 『남조선문제』, 3호(조국통일사, 1986), pp. 31~33 ; 저자없음, 「대규모적인 단계적 무력축감은 온 겨레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 『남조선문제』, 6호(조국통일사, 1987), pp. 6~8 ; 리승엽, 「원썬들의 '동기토벌'을 완전 실패시킨 영웅한 남반부 인민 유격대와 그들의 당면 임무」, 『근로자』, 6호(로동신문사, 1950), pp. 9~22; 리기석, 「인민 군대의 승리적 진격에 호응한 남반부 인민 유격대의 투쟁」, 『근로자』, 14호(로동신문사, 1950), pp. 43~50; 김수천,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는 것은 조선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절박한 과업」, 『근로자』, 9호(근로자사, 1986), pp. 72~76 ; 리창선,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 『근로자』, 11호(근로자사, 1987), pp. 81~86.
- 5) 다음의 문헌이 '기타군사 일반'에 해당한다. 저자없음, 「[용어해설] 전초기지」, 『남조선문제』, 5호(조국사, 1967), p. 47 ; 저자없음, 「[상식] 태평양전쟁」, 『남조선문제』, 6호(조국통일사, 1983), p. 31 ; 저자없음, 「[상식] 미싸일」, 『남조선문제』, 9호(조국통일사, 1983), p. 50.
- 6) 다음의 문헌이 '기타군사 동맹'에 해당한다. 남기혁, 「조선침략전쟁을 위한 미일군사결탁의 강화」, 『남조선문제』, 12호(조국통일사, 1981), pp. 53~54 ; 계정복, 「미일반동들의 <극동유사시연구>와 조선침략전쟁준비의 로골화」, 『남조선문제』, 6호(조국통일사, 1982), pp. 24~25 ; 현명준, 「아세아 침략을 위한 미일 반동들의 <공동작전> 계획」, 『근로자』, 23호(근로자사, 1965), pp. 35~42.

〈표 3〉 북한의 군사관련 연구 현황 분류

구분	간행물 명	연구주제 세부분류								
		군사일반					군사동맹			합계
		미국 군사 일반	남한 군사 일반	북한 군사 일반	일본 군사 일반	기타 군사 일반	한미 군사 동맹	한일 군사 동맹	기타 군사 동맹	
정책잡지	남조선문제	47	50	6	4	10	13	5	6	141
정책잡지	근로자	20	2	11	2	1	1	3	4	44
전문학술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	1	·	·	·	·	·	1
전문학술지	철학연구	·	·	1	·	·	·	·	·	1
전문학술지	정치·법률연구	1	·	·	·	1	·	·	·	2
대중잡지	조선여성	8	·	·	·	1	4	3	·	16
정책잡지	국제생활	7	1	4	·	·	8	1	·	21
전문학술지	사회과학	·	1	·	·	·	·	·	·	1
정책잡지	교원선전수첩	4	·	·	·	·	2	1	·	7
정책잡지	조선사회민주당	1	1	·	·	1	·	·1	·	4
정책잡지	인민	·	·	3	·	1	·	·	·	4
정책잡지	조선문제연구	3	2	·	·	1	·	·	·	6
소계		91	57	26	6	16	28	14	10	248
합계		196					52			

〈표 3〉을 보면, 『남조선문제』에 수록된 군사분야 문헌은 총 141건으로 군사일반, 군사동맹을 통틀어 가장 많은 문헌을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44건, 『국제생활』이 21건을 차지하고 있다. 여타의 〈학술지〉에서도 남한 군사연구를 발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 〈학술지〉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남한 군사연구는 많지 않다. 즉, 『남조선문제』와 『근로자』는 남한을 대상으로 하거나 정치적 문제 등의 사

안을 해설하고 선전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학술지>에 비해 남한 군사분야 문헌이 많다고 하겠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 일반에서는 '미국군사 일반'이 91건으로 전체 군사 일반 문헌에서 46.4%를 차지한다. '남한군사 일반'은 총 57건으로 29.1%이다. 이는 북한의 군사연구가 주한미군 문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등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남한군사 일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군사 일반'과 '남한군사 일반'을 합치면 총 148건으로 전체 군사일반 문헌에서 75.5%에 해당한다. 이 두 주제가 군사일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군사동맹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이 28건으로 53.8%이며, '한미일군사동맹'은 14건으로 26.9%이다. 두 군사동맹을 합치면, 42건으로 80.7%를 차지한다.

북한 문헌을 통해 남한 군사연구를 분류해 보면, 대상 자체가 '남한 군사'보다는 '미국 군사'와 '한미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동맹'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문헌 자체가 내부 교양자료이기 때문에 외부 군사문제를 통해 1. 자본주의 군대의 문제를 부각하고, 2. 미국, 일본의 군사정책을 통한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며, 3. 미국에 예속된 남한의 정권 및 군대를 비난하고, 4. 전쟁위기 고조를 통한 내부 단결을 하기 위한 것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시기별 남한 군사연구 경향 변화

북한의 시기별 남한 군사연구 현황은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가 153건으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남한 군사연구가 활발했던 것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그 중에서도 1976년에 시작해 1980년대에 본격화된 한미연합작전훈련, 즉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 때문으로 판단된다. 남한 군사연구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부터 하락했다. 이는 '남한 군사연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주요 간행물인 『남조선문제』가 폐간되었기 때

문이다. 본 연구는 『남조선문제』를 1988년 4호까지 입수하였다. 이전 시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1990년대부터는 자료의 양보다는 내용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자료는 문헌 수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로 한정된다.

1950~1960년대에 북한은 남한과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일협정이 맺어지는 이전 시기인 1953~1964년은 북한이 남한과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위를 보인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남한은 1950년대 말까지 계속 정치적 불안정에 휩싸였고, 이후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이승만 정부 이후 과도정부의 수립, 5·16 군사쿠데타⁷⁾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반면 김일성은 이 시기에 일련의 숙청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적어도 이 시기 북한은 전후 복구 및 체제정비에 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문헌상으로 남한의 군사연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시기별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 현황

시기	군 사		합계
	군사일반	군사동맹	
1950년대	11	·	11
1960년대	17	4	21
1970년대	38	6	44
1980년대	114	39	153
1990년대	8	1	9
2000년대	8	2	10
합계	196	52	248

7) 신종대, 「5.16 쿠데타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남한의 정치변동과 북한의 국내정치」,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1호(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pp. 81~103 참조.

1960년대 중·후반기는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가 본격적으로 태동한 시기이다. 남한 군사연구의 내용은 대략 1960~70년대는 박정희 정권 및 군사교육·정책 비판⁸⁾, 1980년대는 이전 군사정권의 연속선상에서 전두환 정권 비판⁹⁾, 미군에 종속적인 남한군대 문제¹⁰⁾ 등을 다루고 있다.

〈표 5〉 시기별 북한의 '남한군사 일반' 연구 현황

시기	간행물	남조선문제	근로자	국제생활	사회과학	조선사회민주당	조선문제연구	합계
1950년대		·	·	·	·	·	·	·
1960년대		2	1	·	·	·	·	3
1970년대		19	·	·	·	·	1	20
1980년대		29	1	·	1	1	1	33
1990년대		·	·	1	·	·	·	1
2000년대		·	·	·	·	·	·	·
합계		50	2	1	1	1	2	57

'미국군사 일반' 연구의 시기별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1950년대는 남한에 주둔한 '미군 철수'¹¹⁾ 강조가 주를 이루고, 1960년대는 국제적 시각에서 '미국의 군사전략'¹²⁾에 초점을 맞추고 있

- 8) 장봉, 「《정훈 교육》은 무엇을 노리는가」, 『남조선문제』, 9호(남조선문제출판사, 1965), pp. 33~36 ; 최진호, 「남조선괴뢰군내에서 《정훈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 『남조선문제』, 11호(조국통일사, 1971), pp. 30~36 ; 성정호, 「괴뢰군 《현대화 5개년계획》은 전쟁과 분렬을 위한 범뢰적 계획」, 『남조선문제』, 6호(조국통일사, 1977), pp. 22~26.
- 9) 윤자홍, 「죽은 독재자의 전쟁정책을 이어가는 남조선괴뢰도당」, 『남조선문제』, 7호(조국통일사, 1980), pp. 36~37.
- 10) 박영호, 「남조선괴뢰군은 식민지고용군대」, 『남조선문제』, 10호(조국통일사, 1984), pp. 47~50 ; 리명곤, 「남조선 《국군》의 통수자는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 『조선사회민주당』, 2호(조선사회민주당출판사, 1983), pp. 73~77.
- 11) 저자없음,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근로자』, 6호(근로자사, 1959), pp. 34~37 ; 오재양, 「미군의 남조선에서의 철퇴는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조선문제연구』, 2권 1호(조선문제연구소, 1958), pp. 13~23.
- 12) 황석과, 「아세아에서의 미제 호전광들의 위험한 불장난」, 『근로자』, 9호(근로자사, 1962), pp. 26~29 ; 최호경,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기지화 정책」, 『근로자』, 12호(근로자사, 1964), pp. 40~44 ; 박순재, 「세계 제패를 위한 미제의 군사전략과 그 파산」, 『근로자』, 22호(근로자사, 1965), pp. 39~48.

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이나, '미군 철수'가 주요 이슈이며, 1980년대는 '미군의 남한전략', '한반도 내 미국의 전쟁, 핵위협 고조'¹³⁾가 문헌에서 부각되고 있다. 사실상 2000년대가 되면 새로운 문제를 내세우기보다는 이전부터 반복하고 있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한국전쟁기 미군의 패배경험'¹⁴⁾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표 6〉 시기별 북한의 '미국군사 일반' 연구 현황

간행물 시기	국제 생활	조선 문제 연구	근로자	남조선 문제	조선 여성	교원 선전 수첩	정치· 법률 연구	조선 사회 민주당	합계
1950년대	2	1	1	·	·	·	·	·	4
1960년대	·	·	10	·	·	·	·	·	10
1970년대	·	1	5	4	1	·	·	·	11
1980년대	4	1	4	43	3	3	·	·	58
1990년대	1	·	·	·	·	·	·	·	1
2000년대	·	·	·	·	4	1	1	1	7
합계	7	3	20	47	8	4	1	1	91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군사동맹 관련 주요 논문 대부분은 198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1980년대에 '한미 군사동맹'이 주로 연구된 배경에는 한·미 연합작전훈련, 즉 팀스피리트 훈련¹⁵⁾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기 때문

13) 진용부, 「조선반도를 핵전쟁마당으로 전변시키려는 미제의 책동」, 『남조선문제』, 3호(조국통일사, 1986), pp. 36~38 ; 방철수, 「남조선의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 『근로자』, 3호(근로자사, 1987), pp. 93~96 ; 엄용섭, 「남조선에서 미제의 범죄적인 핵전쟁책동」, 『교원선전수첩』, 9호(미확인, 1989), pp. 114~124.
 14) 본사기자, 「조선전쟁에서 미제의 패배상」, 『조선여성』, 4호(근로단체출판사, 2000), p. 40.
 15) 조남훈, 「미제의 《팀스피리트》 군사연습과 전쟁 위협의 증대」, 『남조선문제』, 6호(조국통일사, 1983), pp. 28~29; 안동립, 「《팀 스피리트 84》 군사연습과 미제의 북침흉계」, 『남조선문제』, 6호(조국통일사, 1984), pp. 44~46 ; 리중학, 「《팀 스피리트 85》 합동 군사연습과 핵전쟁의 위협성」, 『남조선문제』, 4호(조국통일사, 1985), pp. 43~45 ; 김진명, 「《공세전략》과 《팀 스피리트86》」, 『남조선문제』, 3호(조국통일사, 1986), pp. 39~41 ; 진용부, 「북침을 노린 《팀 스피리트》」, 『남조선문제』, 3호(조국통일사, 1987), pp. 39~42.

이다. 한국과 미국은 1983년부터 팀스피리트 훈련을 더욱 견고한 대북 군사훈련으로 발전시켰다. 북한은 1983년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응해 2월 1일~5월 16일 사상 처음으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군사력 증강을 계속했다. 그러나 군사력 증강은 경제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표 7〉 시기별 북한의 '한미군사동맹' 연구 현황

간행물 시기	남조선문제	근로자	교원선전수첩	조선녀성	국제생활	합계
1950년대	·	·	·	·	·	·
1960년대	1	·	·	·	·	1
1970년대	·	1	·	·	·	1
1980년대	12	·	2	3	7	24
1990년대	·	·	·	·	1	1
2000년대	·	·	·	1	·	1
합계	13	1	2	4	8	28

한편,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1960년대는 미국의 군사전략으로 한일회담과 베트남 파병 등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1970년대는 문헌이 많지 않지만, '반공군사동맹', '전쟁 책동'으로서의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부각시키고 있다. 체제위기가 지속될수록 북한은 남한 군사연구를 통해 남한정부, 3각 군사동맹¹⁶⁾, 미국의 핵개발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표 8〉 시기별 북한의 '한미일 군사동맹' 연구 현황

간행물 시기	남조선문제	근로자	조선녀성	조선사회민주당	교원선전수첩	국제생활	합계
1950년대	·	·	·	·	·	·	·
1960년대	1	·	·	·	·	·	1
1970년대	·	1	1	·	·	·	2
1980년대	4	2	1	1	1	1	10
1990년대	·	·	·	·	·	·	·
2000년대	·	·	1	·	·	·	1
합계	5	3	3	1	1	1	14

16) 냉전시기 한미일 관계에 관해서는, 박선원, 「냉전기 한미일관계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3집 제1호(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1), pp. 313~342 참조.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1980년대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3각 군사동맹의 문제 제기가 구체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대외적으로 미·소 양극체제에서의 소련의 한계, 중국의 대미, 대일 접근정책으로 인한 북방삼각동맹의 약화, 남한의 국제적 지위 향상(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대중·대소 관계 개선) 등으로 인해 북한의 국제환경 자체가 고립되었다. 구조적으로 북방삼각동맹이 무너지고 대내적으로 김정일 지위체계를 안정화시키고 공고히 하기 위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군사충돌을 자제하면서 3각 군사동맹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내부적으로 전쟁 위기나 미국, 일본, 남한의 군사적 위협 제기 등이 효과적인 교양자료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 이슈 분석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의 주요 이슈는 시기별로 변화를 보여 왔다. 1960년대 남한 군사연구의 주요 이슈는 '정훈교육'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는 보다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었다. 그것은 정훈교육을 포함해, 남한 군인, 남한의 전쟁 준비 및 전력 증강, 남한 대통령 비판, 남한 병역 제도 비판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는 남한의 군사정책, 남한 군인, 남한 군사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서의 남한 등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정훈교육, 남한군인, 남한의 전쟁준비 및 전력증강, 대통령 및 남한 정권 비판, 군사정책과 군사비 등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남한의 '정훈교육' 비판

북한은 남한군대에 대해 한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식민지 고용 군대'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본가와 관료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한군대의 <정훈교육>은 병사들 속에서 맹목적인 복종과 기계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유용한 매개체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4·19혁명을 예로 들며 남한 사회는 민족적, 계급적 모순이 첨예화되어 있고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은 훌륭히 수행¹⁷⁾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 앞에서 <정훈교육>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병들의 민족적,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켜 그들을 미제의 침략 정책에 충실히 복무하는 값싼 대포밥으로 동포 형제 자매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며 노동자, 농민의 혁명적 진출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매국 배족적 반인민적 무장 도구로 만들기 위하여 《반공》, 숭미 공미 사상과 인간 증오 사상 및 맹목적 《군인정신》을 주입하는 것이다.”¹⁸⁾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괴뢰군대에서 감행하고 있는 《정훈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먼저 괴뢰군 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가로막으며 제놈들의 침략정책에 충실히 복무하는 값싼 대포밥으로, 동포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며 노동자, 농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보다 철저한 매국배족적 무장력으로 만들자는데 있다.”¹⁹⁾

위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1965년 장봉의 논문 「정훈교육은 무엇을 노리는가」가 미국의 식민지 군대의 맹목적인 복종과 순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1971년 최진호의 논문, 「남조선괴뢰군내에서 《정훈교육》을 더욱 강화하

17) 장봉, 「《정훈교육은 무엇을 노리는가》」, 『남조선문제』, 9호(남조선문제출판사, 1965), p. 36.

18) 장봉, 「《정훈교육은 무엇을 노리는가》」, p. 33.

19) 최진호, 「남조선괴뢰군내에서 《정훈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 『남조선문제』, 11호(조국통일사, 1971), p. 30.

기 위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의 정훈교육은 이전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남한의 정훈교육을 '반공교육'으로 동일시하여 이러한 '반공선전'을 하는 원인을 북한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와 그 우월성, 궁극적으로 김일성에 대한 존경과 동경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와 수령 김일성을 일부로 혈뜯기 위해 <정훈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1년의 <정훈교육>과 1965년의 <정훈교육>은 큰 틀에서 미국 식민지 군대의 교육이라는 내용에서는 변함이 없으나, 해당문제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김일성의 역할, 지위'를 억지로 폄하하는 차원에서 남한의 <정훈교육>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1967년 북한의 유일지도체제 정립이 일반 학술지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 남한군인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에 있어서 남한군인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남한의 정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군 생활을 하는 과거의 노동자, 농민'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그들은 '미국과 남한정권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나와 계급과 민족을 반대하는 치욕스러운 괴뢰군살이'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적으로 남한정권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난과 비판이 가해지는 반면, 남한군인에 대해서는 이들의 투쟁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북한 내부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미제의 식민지고용군대, 남조선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쇼통치의 도구로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적 군사도발과 전쟁 연습에 날마다 내몰리며 심지어 미제의 월남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끌려다니고 있으며 생존과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²⁰⁾

20) 리창갑, 「남조선괴뢰군 병사, 중하층장교들의 최근 사상동향」, 『남조선문제』, 3호(조국통일사, 1972), p. 36.

특히 남한군인들을 '김일성을 존경하고 북한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대상으로 규정짓거나, 남한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 잠재 요소'로 선전하고 있다. 즉, '남조선 괴뢰군 병사들 속에서도 반미반독재감과 함께 반전기운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²¹⁾는 식의 선전을 하고 있다. 달리 설명하면 남한 군인의 정신상태는 '반미반괴뢰감정'과 '염전염군(厭戰厭軍)사상'을 일 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군인의 정신력 해이는 상대적으로 북한군의 정신력 우위를 각인시켜 주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

(3) 남한의 '전쟁 준비 및 전력 증강' 비판

북한의 남한군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남한의 전쟁 준비가 미국의 도움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남한의 전쟁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력 증강에 대한 비판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북한체제의 유지 전략에 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남한의 '북침 책동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통일은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느니, 《실력배양을 하여 힘의 우위를 보장》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최근년간에는 괴뢰군의 《정예화》와 장비의 《현대화》, 군수산업의 건설과 《향토예비군》의 강화를 《당면국방시책》으로 내세우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²²⁾

“모든 사실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다그치고 있는 괴뢰군 《전력증강5개년계획》이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유린하고 민족분열

21) 계정복, 「괴뢰군병사들의 동향」, 『남조선문제』, 3호(조국통일사, 1983), p. 14.

22) 김춘선, 「미일제국주의의 비호밑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준비책동」, 『남조선문제』, 2호(통일신보사, 1974), p. 25.

의 영구화를 꾀하며 새로운 북침전쟁을 일으키려는 범죄적인 계획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 있다.”²³⁾

“남조선괴뢰도당은 죽은 독재자의 전쟁정책을 이어가면서 우선 괴뢰정부에 산에서 《방위비》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괴뢰군장비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고 있다.”²⁴⁾

“전두환악당의 북침전쟁소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미국상전의 장단에 맞추어 《남침위협》이라는 허황한 구호를 내들고 남조선전역에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괴뢰군과 민간군사조직들을 임의의 시각에 전쟁마당에로 내몰수 있도록 그 지휘체계를 재정비보강하며 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 있는 것이다.”²⁵⁾

위의 논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는 북한체제의 우위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논문들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는 남한에 대한 직설적이고 부정적인 용어들이 동원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꾀하는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4) 남한 대통령 및 정권 비판

군사 분야에서 남한의 정권 비판에 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남한의 군 통수권자가 미국의 지휘 아래 70만에 가까운 청장년을 군대에 강제로 징집시켜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인민대중을 탄압하는 도구로 혹은 전쟁의 희생양으로 군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3) 최명갑, 「괴뢰군 《전력증강5개년계획》은 새 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범죄적계획」, 『남조선문제』, 10호(조국통일사, 1976), p. 37.

24) 윤자홍, 「죽은 독재자의 전쟁정책을 이어가는 남조선괴뢰도당」, 『남조선문제』, 7호(조국통일사, 1980), p. 36.

25) 본사기자, 「자멸을 재촉하는 북침전쟁소동」, 『남조선문제』, 6호(조국통일사, 1983), p. 30.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는 기본적으로 남한 군인은 노동자, 농민의 근로인민 출신이기 때문에 남한정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남한 정권은 내부적 갈등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며,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집단이기 때문에 남한 군인의 항거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남조선괴뢰군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의 반박정희기운은 오늘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쇼폭압통치와 매국배족행위가 강화되고 그것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²⁶⁾

“력대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전쟁사환군들, 매국배족적인 군사파쇼분자들로 꾸러졌으며 군사파쇼독재에 의거하여 미제의 전쟁정책수행에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미제의 전쟁정책 수행에 동원하고 있다.”²⁷⁾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남한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비판을 통해 남한 내부에서의 지도자와 군인들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고전적 전술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는 전혀 다르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5) 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비에 대한 비판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에서, 북한의 군사정책은 사실상 전쟁 준비를 위한 정책으로 정의된다. 특히 남한의 군사비는 단순히 자금의 활용에 관한 문제를 넘어 이러한 돈이 ‘군사기지 및 시설’을 신설, 확장하는 데 노동자, 농

26) 한원진, 「남조선괴뢰군안에서 더욱 높아가는 반박정희 기운」, 『남조선문제』, 12호(조국통일사, 1978), p. 32.

27) 한원진,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전쟁정책 수행의 도구」, 『남조선문제』, 9호(조국통일사, 1981), p. 29.

민을 비롯한 주민들을 강제동원하는 문제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남한의 군사정책이 전반적으로 '남한 경제의 예측성과 기형성을 심화시키고 민족경제의 파탄을 촉진하며 남한 주민들을 더욱더 재난과 고통 속에 밀어 넣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국에는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²⁸⁾가 되는 것으로 전망한다.

“《향토예비군》은 전 독재자 박정희역적놈이 이른바 《향토》를 지킨다는 간판밑에 괴뢰군의 보충적인 예비병력으로 써먹기 위하여 1968년 4월에 조작해 낸 반혁명적기간군사조직이다. 오늘 전투환역적은 《향토예비군》을 파쇄화, 정규무력화하기 위한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미친듯이 벌리고 있다.”²⁹⁾

“남조선에서는 우선 방대한 자금이 군사비로 지출되고 있다. 괴뢰정부의 올해 《예산》에서 직접적군사비인 《방위비》는 3조 2천 985억 7,400만원으로서 세출항목에서 34.4%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괴뢰들의 《방위비》에는 군수공업의 육성비와 각종 무기와 그 부분품의 구입비 그리고 괴뢰군과 군사기관의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년간 《방위비》에서 무기구입과 군수공업에 투자하는 몫이 50% 이상에 달하고 있다.”³⁰⁾

“최근년간 직접적군사비인 《방위비》가 재정예산의 30%를 훨씬 넘고있다. 올해의 경우 《방위비》는 예산의 33.2%에 해당하는 3조, 4,516억원에 달하고 있다. 놈들은 이것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살인무기와 전투기자재를 사들이며 군수공업에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³¹⁾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의 대북군사정책과 군사비에 대한 비판이 적나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글들은 북한 내부적으로 대남 경각심을 고조시키면서 주민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28) 리민철, 「화약내 짚어가는 《군사기지경제》」, 『남조선문제』, 12호(조국통일사, 1981), p. 41.

29) 박일청, 「《향토예비군》을 더욱 파쇄화하기 위한 괴뢰들의 책동」, 『남조선문제』, 10호(조국통일사, 1981), p. 34.

30) 리민철, 「화약내 짚어가는 《군사기지경제》」, p. 40.

31) 장영호, 「전쟁정책에 복무하는 남조선경제」, 『남조선문제』, 6호(조국통일사, 1984), p. 47.

4. 북한의 남한 군사분야 연구의 특징

(1) 남한 군대의 '식민지화' 비판

북한이 남한 군사분야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남한의 군대가 미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는 구체적인 남한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미국과 남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전반적인 대미, 대남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식민지 군대'로서의 한국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 군대의 식민지화'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 대한 선전의 논리로서만 활용될 뿐이다.

반면, 남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남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는 판이한 차이를 보인다. 즉, 남한 군대, 군인은 '미국이나 정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복무'하는 것이므로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 군사에 대한 북한 연구 내용들이 정권 차원과 남한 군인들을 분리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는 일관되게 남한 군사문제가 체제 문제와 직결됨을 강조해 왔다. 이는 남한 군사문제를 본질적으로 남한 체제 문제와 직결시키고, 그 과정에서 남한군대 하부로부터의 갈등과 모순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선전이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일관되게 주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 전혀 설득력 없는 궤변에 다름 아니다.

(2) 남한 군사분야 이슈의 다양화

북한의 남한 군사 분야는 남한정권과 남한의 대북 군사정책에 대한 비판을 기본으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한다. 이를테면 <학도호국단>³²⁾ <교련강

32) 저자없음, 「[용어해설] 《학도호국단》」, 『남조선문제』, 9호(조국통일사, 1975), p. 48.

화책),³³⁾ 〈징병도주자〉,³⁴⁾ 〈올림픽 남침설〉,³⁵⁾ 〈국방위원회 연회사건〉,³⁶⁾ 〈제4땅굴〉³⁷⁾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군사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지명, 수치 등을 언급함으로써 사건의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이슈의 다양화는 남한 군대가 불합리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선전 도구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남한 내부의 군대와 관련한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 남한 군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과장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사안을 모략극으로 몰아감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른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건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징병도주자 문제, 1986년 국회 국방위원회 회식사건 등과 같은 경우, 마치 남한사회에 그러한 문제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땅굴 사건' 같은 경우 남한 당국의 모략극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른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

(3) 체제 결속 합리화의 극대화

전반적으로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는 미국, 남한, 일본의 전쟁 위험 고취가 북한의 군사정책 및 군사비 증강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남한의 정권 차원에서 이러한 전

33) 저자없음, 「[용어해설] 《교련강화책》」, 『남조선문제』, 10호(조국통일사, 1971), p. 48.

34) 저자없음, 「[단신자료] 늘어나는 《징병도주자》」, 『남조선문제』, 4호(조국통일사, 1986), p. 33.

35) 진용부, 「북침을 노린 《올림픽남침설》」, 『남조선문제』, 4호(조국통일사, 1986), pp. 31~33.

36) 저자없음, 「[전제물] 《국방위원회 연회사건》」, 『남조선문제』, 6호(조국통일사, 1986), pp. 63~64.

37) 리명준, 「《제4땅굴》 사건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화국 모략극」, 『국제생활』, 5호(국제생활사, 1990), pp. 16~18.

쟁 논리가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체제의 결속을 합리화시켜 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결속을 위한 합리화는 북한의 남한연구에서 변함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이다. 이것은 남한이라는 적대적 대상의 존재를 북한체제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체제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활용되는 방식이었다. 1980년대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체제는 거의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각 지방마다 반미 쫓기대회를 수없이 개최하였다.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는 이러한 북한체제의 통치방식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형태의 연구를 가장 중요한 연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 자체의 어려움이 부각될 때마다 이러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것은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체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됨으로써 실제 효과 측면에서는 점차 반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 관련 원자료인 12종의 정기간행물 수집을 기반으로,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정기간행물 중 남한 군사연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간행물은 『남조선문제』였다. 북한의 남한 군사관련 연구 현황을 보면, 미국 군사부문에 대한 연구가 남한 군사부문보다 더 많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가 기본적으로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된' 남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남한 군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960년대 중·후반

부터이다. 남한 군사연구의 내용은 대략 1960대와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 자체와 군사교육 및 군사정책 비판이 주를 이루고, 1980년대는 군사정권의 연속선상에서 전두환 정권 비판과 '미군에 종속적인' 남한군대 문제 등이 다뤄지고 있다. 한편, 북한의 시기별 남한 군사연구를 보면, 1980년대가 대단히 활발했다. 이는 1976년 시작된 한미 연합작전훈련, 즉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이를 통한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북한의 남한 군사분야 연구의 주요 특징은 남한 군대를 미국의 '식민지 군대'로 본다는 점, 남한 군사분야의 이슈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 북한체제의 합리화와 주민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남한 군사연구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여기서 미국의 '식민지화한 남한 군대'로 보는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는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체제 내부를 향한 주민 선전용으로 활용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본 논문은 자료 수집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DB) 구축과 동시에 자료를 심층 분석하고자 했다. 12종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분석은 큰 틀에서 남한 군사연구의 양적인 흐름, 경향 등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질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시기별 남한 군사연구 현황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자료의 제약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는 시기적으로 1970~80년대 자료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본 논문에서 가장 많은 자료로 활용된 『남조선문제』 수집이 주로 196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년 동안의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 자료 수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 분야의 특성상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원고투고일 : 2010. 6. 29, 심사수정일 : 2010. 7. 16, 게재확정일 : 2010. 7. 27)

주제어 : 한미군사동맹, 한미일군사동맹, 주한미군 철수, 『남조선문제』, 팀스피리트훈련, 김일성, 박정희, 반공군사동맹, 식민지 군대, 종속

<ABSTRACT>

Analysis of How North Korea Has Made Research on the Republic of Korea Military Affairs

Kim, Yong-hy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how North Korea has studied about the operations and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 defense system on the basis of research data and DB collected at home and abroad. To do it, this paper used a wide range of regular or irregular periodicals and books on research on the ROK made by North Korea, which have held at home and abroad up to now since the North Korean regimes were established in 1948.

Subsequently, this research paper abstracted research literature data in which covered only the ROK military affairs out of data on the ROK collected by North Korea. It was 12 out of 37 magazines that were selected as research data.

Accordingly, this research paper made the analysis on how North Korea approached the ROK military affairs. First of all, *Namjoseonmunje* (Issues about the ROK) was mainly covered in regular periodicals, which the North published. Given the research on the ROK military affairs made by the North Korean regimes, it is evidenced that researches on the US military affairs were made more intensively than the ROK counterpart. Also, a majority of critical researches on the US and ROK military alliance have been made. It is so because researches on the the ROK military affairs made by North Korea have put the focal points on *the ROK which is militarily subordinate to the.US*

It was the mid and end of the 1960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egan to research the ROK military affairs.

Most researches on the ROK military affairs conducted by North Korea were of the government regimes of the late *Park Jung-hee*' military education and military policy critics, during the 1960s and 70s. In the 1980s when the *military* regimes were still governed in the ROK, issues on the criticisms for the *Jun Doo-hwan* regime and the ROK military affairs were dealt with. The periods of the 1980s witnessed very active the ROK military researches made in the North. This results from the US and the ROK military alliance operations and training, that took place in 1976, and in more details, from the strong resistance by the North against the Team Spirit and propaganda of it as national solidarity.

One of the marked research traits that North has dealt with the ROK military realms is what North Korea sees the the ROK military as *military colonized under the US troops* and is what the the ROK military spheres have been at issues in multi-lights. And, the North Korean regimes continues to study the ROK military system to rationalize the North Korean regimes and propagate such regime to North Korean people.

Strictly speaking, the research intention of the North to regard the ROK as *Military colonized under the US troops* differs from what has already been known. In other ways, the North Korean regimes make the research on it merely to propagate North Korean people about North Korea.

Key Words : the ROK-US Military Alliance, the ROK-US-Japan Military Alliance, Pulling the US Troops out of the ROK, Namjoseonmunje (Issues about the ROK), Team Spirit, Kim Il-sung, Park Jung-hee, Anticommunism Military Alliance, Troops of Colony, Subordination